

2017.6.25. 서울시 9급 '국어'(A형)총평 및 문제 해설

1. 총평

일주일 전에 치러진 지방직 시험보다는 쉽게 출제됐다. 지식형 문제가 많은 서울시의 경향이 그대로 이어졌고, 수험생들이 부담을 느낄만한 한자 문제가 2문항, 까다로울 수 있었던 고유어 문제가 1문항 출제되었다. '국어의 역사'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이 특이했지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다. 문법과 어문 규정, 문학, 비문학은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다. 어휘 학습이 잘된 수험생들이 역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문법(9)	이론 문법(6)	3,6,7,8,14, 18	음운 변동의 유형을 묻는 음운론, 단어의 형성법에서 파생어를 묻는 형태론, 반의 관계의 성격을 묻는 의미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묻는 통사론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국어의 역사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문법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았으며 국어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물었던 8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다. 지식형 문제가 강화된 서울시 문제는 세부적으로 시기까지 잘 정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어문 규정(3)	1,2,13	표준 발음과 로마자 표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가 출제가 되었다. 헛갈리기 쉬운 'ㄴ'첨가 현상을 반영한 로마자 표기, 특이사항이 있는 한글 맞춤법 표기, 띄어쓰기 등은 평소에 많이 강조가 되었던 부분으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
비문학(4)		4.9.19.20	비문학 지식 중 논리적 오류를 묻는 문제가 출제 되었다. 모든 내용을 꼼꼼히 공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두괄식 문단의 앞 부분의 문장을 묻는 문제는 중심 문장의 성격을 묻는 문제였다. 중간에 들어간 문장을 묻는 추론형 문제도 어렵지 않았다. 제재는 '수필'이었지만 역시 전개될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도 본문 안에서 근거를 성실하게 찾았다면 답을 잘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
문학(3)		5.10.15	현대 소설(채만식의 '치숙'), 현대시(윤동주의 '별헤는 밤'), 현대 문학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치숙'에서는 서술자의 특이성, '별헤는 밤'에서는 시적화자의 태도가 작품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부분이 시험에 나왔다는 것은 작품의 개별적 포인트를 잘 학습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문학사를 잘 묻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잘 대비해야 한다.
어휘(4)	일 반 어 휘(2)	11,16	고유어의 뜻과 속담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고유어의 뜻'을 묻는 문제가 어려울 수 있었으나, 고유어는 우리의 정서를 잘 반영한 말이므로 평소에 쓰는 말의 어감을 잘 살려 문제를 푸는 것이 통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한자(2)	12,17	지방직보다는 더 익숙한 한자가 출제되었다. 한자와 독음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2음절의 한자와 독음 연습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영역별 비중



3. 정답 및 해설

1. 다음 중 제시된 단어의 표준 발음과 로마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선릉[선능] - Seonneung
- ②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 ③ 낙동강[낙똥강] - Nakddonggang
- ④ 집현전[지편전] - Jipyeonjeon

정답 ②

‘학여울’은 ‘ㄴ’첨가 현상이 나타나 [학녀울]이 되었다가 ‘비음화’로 [항녀울]이 된다. 이를 잘 반영한 로마자 표기 ‘Hangnyeoul’이 맞다.

[오답 풀이]

- ① [설릉] ‘Seolleung’

- ③ [낙동강] Nakdonggang :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④ [지편전] Jiphyeonjeon :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나올 때에 ‘ㅎ’을 밝혀 적어야 한다.

2.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방학 동안 몸이 부는 바람에 작년에 산 옷이 맞지 않았다.
 ②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③ 오늘 뒤풀이는 길 건너에 있는 맥줏집에서 하도록 하겠 습니다.
 ④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이 책은 중세 국어의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정답 ③

‘뒤풀이’는 뒷말이 거센소리나 된소리일때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으며 ‘맥줏집’은 [맥쭈쭈/맥쭈쭈]으로 발음되며, ‘한자어+고유어’의 단어이므로 ‘맥줏집’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오답풀이]

- ① ‘붙다’에서 활용한 ‘붙는’이 맞다.
 ② ‘넉넉하다’에서 활용한 ‘넉넉지’가 맞다. ‘넉넉하다’에서 ‘-하다’앞에 오는 말이 올림소리가 아니므로 거센소리로 줄어지지 않고 ‘넉넉지’로 줄어진다.
 ④ ‘로써’가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가리키는 격 조사이며, ‘로서’가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자료로서’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3. 다음 중 국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띄어쓰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② 주격 조사 가 는 고대 국어에서부터 등장한다.
 ③ ㆍ는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④ ㅼ 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ㅽ 으로 변화였다

정답 ①

띄어쓰기는 1896년 <독립신문 창간사>에 나타났으나 이것이 규범화된 것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이다.

[오답풀이]

- ② 주격 조사 ‘가’는 근대 국어에 나타난다.
 ③ ㆍ는 음가가 17세기에 사라졌고, 표기는 20세기에 없어졌다.
 ④ ‘ㅼ(순경음비읍)’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었다가 모음 앞에서 ‘ㄴ/ㄷ’로 변화였다.

4. 다음 문장들을 두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가장 먼저 와야 할 문장은?

- ㉠ 신라의 진평왕 때 눌치는 백제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병졸들에게, 봄날 온화한 기운에는 초목이 모두 번성하지만 겨울의 추위가 닥쳐오면 소나무와 잣나무는 늦도록 잎이 지지 않는다. ㉡ 이제 외로운 성은 원군도 없고 날로 더욱 위태로우니, 이것은 진실로 지사 의부가 절개를 다하고 이름을 드러낼 때이다. 라고 훈시하였으며 분전하다가 죽었다. ㉢ 선비 정신은 의리 정신으로 표현되는 데서 그 강인성이 드러난다. ㉣ 죽죽 (竹竹)도 대야성에서 백제 군사에 의하여 성이 함락될 때까지 항전하다가 항복을 권유받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죽죽이라 이름 지어 준 것은 내가 추운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으며 부러질지언정 굽힐 수 없도

록 하려는 것이었다.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아서 행복할 수 있겠는가. 라고 결의를 밝혔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두괄식 문단은 중심 문장이 앞에 나타나는 구성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거나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중심 문장이 될 수 없으므로 다른 문장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중심 문장으로 와야 한다. ㉠㉡㉣은 모두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중심 문장이 될 수 없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5. 다음 중 <보기>의 시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 별 하나에 사랑과 /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 별 하나에 시와 /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윤동주. '별헤는 밤'

① 화자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내면을 고백 하고 있다.

② 화자의 내면과 갈등관계에 있는 현실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별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낸다.

④ 별은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라는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상징한다.

정답 ③

이 작품은 별을 헤면서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며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별'이 시적 화자의 내적 세계(추억 회상, 그리움, 이상)를 드러내고 있다.

[작품 해설]

•갈래 :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제재 : 별

•주제 : 고향에 대한 동경과 자아 성찰

6. 다음 중 반의 관계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살다 - 죽다 ② 높다 - 낮다

③ 늙다 - 젊다 ④ 뜨겁다 - 차갑다

정답 ①

반의어는 크게 '정도 반의어', '상보 반의어'로 나눌 수 있다. '상보 반의어'는 하나를 부정하면 다른 하나가 되는 것으로 중간항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살다-죽다'는 '상보 반의어'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도 반의어'에 해당한다.

7. 다음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과 단어 형성 원리가 같은 것은?

<보기> 개살구, 헛웃음, 낚시질, 지우개

- ① 건어물(乾魚物) ② 금지곡(禁止曲)
③ 한자음(漢字音) ④ 핵폭발(核爆發)

정답 ①

'개살구, 헛웃음, 낚시질, 지우개'는 각각 '개-, 헛-, -질, -개'의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건-'의 접사가 들어간 '건어물'이 파생어로 단어 형성 원리가 같다. '금지곡, 한자음, 핵폭발'은 모두 합성어이다.

8. 다음 중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쓰인 것은?

- ① 님금 ② 늦거사 ③ 바울 ④ 가비야븐

정답 ④

나머지는 모두 훈민정음 초성자에 포함이 되나, 병은 초성자를 운용해서 만든 연서(連書)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창제 당시 초성의 체계

구분	상형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어금닛소리 [牙音(아음)]	象舌根閉喉之形 (상설근폐후지형)	ㄱ	ㅋ	ㆁ
혓소리 [舌音(설음)]	象舌附上齶之形 (상설부상악지형)	ㄴ	ㄷ, ㅌ	ㄹ
입술소리 [脣音(순음)]	象口形(상구형)	ㅁ	ㅂ, ㅃ	
잇소리 [齒音(치음)]	象齒形(상치형)	ㅅ	ㅆ, ㅈ	ㅊ
목소리 [喉音(후음)]	象喉形(상후형)	ㅇ	ㆁ, ㆏	

9. 다음 예문과 같은 유형의 논리적 오류가 나타난 것은?

이 식당은 요즘 SNS에서 굉장히 뜨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을 거야.

- ① 이 식당 음식을 꼭 먹어보도록 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집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맛이 괜찮은가 봐.
② 누구도 이 식당이 맛없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집이란 소리지.
③ 여기는 유명한 개그맨이 맛있다고 한 식당이니까 당연히 맛있겠지. 그러니까 꼭 여기서 먹어야 해.
④ 이번에는 이 식당에서 밥을 먹자. 내가 얼마나 여기서 먹어 보고 싶었는지 몰라. 꼭 한번 오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어.

정답 ①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으므로 식당이 맛있을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호소 오류'이다.

‘대중(여론)에의 호소: 타당한 근거 없이 대중의 감정 또는 군중 심리에 호소하거나, 여러 사람이 동의한다는 점을 앞세워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도록 하는 오류이다.

[오답 풀이]

②무지예의 호소: 반증된 적이 없으므로 어떤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거나, 증명된 적이 없으므로 어떤 결론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류이다.

③부적합한 권위에의 호소: 논점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권위자의 견해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오류이다.

④자신의 소망과 바람을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가 아니다. ‘논리적 오류’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10.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집 다이쇼 * 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까 인제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밑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수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죄선 *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땡땡거리고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암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암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 데안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나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쓰고, 도무지 그래서 죄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바리여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이쁘겠다, 암전 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좀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기나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이렇게 다 생활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 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 다이쇼: 주인 * 죄선: 조선 * 내지인: 일본인

① 서술자가 내지인을 비판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② 서술자가 전지적 존재로서 인물과 사건을 모두 조망할수 있다.

③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내면을 추리 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정답 ④

채만식의 ‘치숙’은 조선인보다 내지인(일본인)을 더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제목을 통해서 사회에 비판적이고 일본인이 강점한 사회에 저항하는 사회주의자 ‘아저씨’를 ‘어리석은 아저씨’라고 칭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사회를 바르게 바라볼 줄 모르고, 그릇된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나’(서술자)를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즉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의 역할로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보게 한다.

[작품 해설]

- 갈래 : 단편 소설. 풍자 소설. 사회 소설
- 배경 : 시대(일제 강점기). 공간(도회지, 군산→서울). 사회(이념이 대립하는 사회)
-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 성격 : 식민지의 시대 상황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소설로서 풍자적 성격이 강함
- 어조 : 풍자적
- 주제 : 일제강점기의 현실 순응적 사회를 비판
- 출전 : <동아일보>(1938)

11. 다음 <보기>의 속담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말은?

<보기> ㉠ 가물에 도랑 친다 ㉡ 까마귀 미역 감듯

- ① 헛수고 ② 분주함
- ③ 성급함 ④ 뒷고생

정답 ①

두 속담 다 모두 일을 하거나 수고를 해도 보람이 없다는 뜻이므로 '헛수고'가 가장 관련이 깊다.

- 가물에 도랑 친다 : 한창 가물 때 애쓰며 도랑을 치느라고 분주하게 군다는 뜻으로, 아무 보람도 없는 헛된 일을 하느라고 부산스레 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까마귀 미역 감듯 : 까마귀는 미역을 감아도 그냥 검다는 데서, 일한 자취나 보람이 드러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다음 중 한자어와 독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陶冶 - 도치 ② 改悛 - 개전
- ③ 殺到 - 살도 ④ 汨沒 - 일몰

정답②

改悛(고칠 개, 고칠 전):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

[오답 풀이]

① 陶冶(질그릇 도, 풀무 야): ① 도공과 주물공. 또는, 도기를 만드는 일과

주물을 만드는 일. ② 심신을 닦아 기를

倒置(넘어질 도, 돌 치): ① 뒤바뀜, ② 거꾸로 뒤바꾸어 둬, ③ 문법이나 수사학 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어순이 뒤바뀌는 일. '안 된다. 가지 않으면' 따위

③ 殺到(빠를 쇠, 이를 도): 세차게 몰려듦.

刺殺(찌를 척/찌를 자, 죽일 살): 칼 따위로 찔러 죽임.

④ 汨沒(골물할 골, 빠질 몰): ① 다른 생각을 일절 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온 정신을 쏟음. ② 부침(浮沈)

日沒(날 일, 빠질 몰): 해가 짐.

13. 다음 <보기>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보기>

창 밖은 가을이다. 남쪽으로 난 창으로 햇빛은 하루하루 깊이 안을 넘본다. 창가에 놓인 우단 의자는 부드러운 잿빛이다.

그러나 손으로 ㉠ 우단천을 결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슬쩍 녹듯빛이 돈다. 처음엔 짙은 썩색이었다. 그 의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 30년 동안은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채 하는 일이라곤 햇볕에 자신의 몸을 잿빛으로 바라는 ㉢일 밖에 없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30년'에서 '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서는 붙여 씀을 허용한다. '동안'은 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쓴다.

[오답 풀이]

① ㉠ '창밖'은 하나의 단어이므로 반드시 붙여 쓴다.

② ㉡ '우단 천'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④ ㉢ '밖에'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일밖에'로 쓰는 것이 맞다.

14. 다음 <보기>의 ㉠~㉣ 중 주어가 다른 하나는?

<보기>

진찰의 첫 단계로 임상심리 검사를 시작해 보니 환자의 증세가 참으로 특이하더군요. 도대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진술 거부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터무니없이 불안해하거나 자기 생각을 거짓말로 술술 ㉠ 속여넘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게 틀림없다고 고집이지 뭐니까. 아니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해 하는 것도 모두 그렇게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을 확인 시키려는 노력에서 ㉡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물론 나중까지 환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받아 놓지 않은 건 아니었지요. 한데 나중에 보호자 ㉢ 연락을 취해 보니 그것도 모두가 거짓말이었던 말입니다. 그런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다시 진짜를 대보라고 했지만 어디 대답이 쉽습니까. 게다가 이 환자는 소지품 중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것을 ㉣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의 '연락을 취해 본' 행위를 한 것은 '우리'이다. 나머지는 모두 주어가 '환자'이다.

15. 다음 예문에 제시된 시사(詩史)의 전개가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 농민의 애환을 다룬 신경림의 농무 를 비롯하여, 고은이나 김지하 등 참여 시인들의 작품은 현실에 저항하는 문학의 실천성을 보여주었다.

㉡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 이 출간되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이 결성되어 리얼리즘 계열의 시가 창작되기도 했다.

㉢ 전쟁에 참여한 시인들은 선전 선동시 등을 창작하기도 했으나 구상의 초토의 시 처럼 황폐화된 국토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 남긴 비극을 그려내는 작품들이 나타났다.

㉣ 모더니즘 시운동을 선도한 시인들이 도시적 감수성을 세련된 기교로 노래했다. 김기림은 장시 기상도를 통해 현대 문명을 비판했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㉔ - ㉓ - ㉒ - ㉑ ④ ㉔ - ㉓ - ㉑ - ㉒

정답 ②

- ㉓ 1920년대에 대한 설명이다. 한용운과 김소월이 민족적 경향을 담은 서정시를 썼으며,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이 결성되었고, 리얼리즘의 작품이 많이 나타났다.
- ㉔ 1930년대에 대한 설명이다. 이상, 김기림, 김광균 등의 모더니즘 작가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 ㉑ 1950년에 대한 설명이다. 전쟁을 겪은 후 전쟁의 비극을 담은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다.
- ㉒ 1970년대 대한 설명이다. 독재 정치의 비극적 현실 속에서 사회 참여 의식을 담은 민중시나 현실 참여시가 나타났던 시기이다.

16.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닐대다 -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 ② 굼적대다 -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
- ③ 꼬약대다 -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 ④ 끝끝대다 -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다.

정답 ②

•굼적대다(동사) =굼적거리다

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몸을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금실대다(동사) =금실거리다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

17.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한자어로 적합한 것은?

토의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 사고 과정이다.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해결 해야 할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 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준거를 토대로 대안을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 ① 토의 - 討議 ② 사고 - 思考 ③ 선택 - 先擇 ④ 준거 - 準據

정답 ②

思考(생각 사, 생각할 고): 생각하고 공리함

[오답 풀이]

① 討議(칠 토, 의논할 의): 어떤 사물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내걸어 검토하고 협의하는 일, 義(옳을 의)

③ 選擇(가릴 선, 가릴 택): ① 여럿 가운데서 골라 뽑음, 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을 의식하고, 그 어느 것을 골라내는 작용, 先(먼저 선)

④ 準據(준할 준, 근거 거): 일정한 기준에 의거함, 擧(들 거)

18. 음운 현상은 변동의 양상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음운 현상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하나는?

- ㉓ 대치 -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㉑ 탈락 - 한 음소가 없어지는 음운 현상

- ㉞ 첨가 - 없던 음소가 새로 끼어드는 음운 현상
- ㉟ 축약 - 두 음소가 합쳐져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㊱ 도치 - 두 음소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음운 현상
- ① 국+만 → [궁만] ② 물+난리 → [물랄리]
- ③ 입+고 → [입꼬] ④ 한+여름 → [한녀름]

정답 ④

‘한여름’은 ‘앞말+ㅣ모음’의 결합으로 ‘ㄴ’이 첨가되는 현상이다. 즉 첨가 현상이다.

- ① 국+만 → [궁만]은 자음동화(비음화), 대치 현상
- ② 물+난리 → [물랄리]은 자음동화(유음화), 대치 현상
- ③ 입+고 → [입꼬]은 된소리되기, 대치 현상

19. 문맥상 다음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역사가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자연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반복을 반복할 뿐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수고 말미에,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 라고 적은 바 있다. 또한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통일은 존재한다. (㉠) 마르크스의 진의(眞意) 또한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양과 일여(一如)한 합일을 지향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 ① 즉 인간과 자연은 상호 간에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 ②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 ③ 즉 자연이 인간의 세계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
- ④ 그러나 인간사를 연구하는 일은 자연사를 연구하는 일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정답 ②

㉠의 앞 부분에서 인간의 역사는 발전과 변화, 자연사는 무한한 반복이라고 말하고, ‘그런데’라는 접속어를 활용해서 내용을 전환한다. 전환된 내용은 역사도 인간의 자연사이고 자연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통일이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도출 할 수 있는 내용은 인간사와 자연사에 대해 갖는 고정적인 생각이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이런 내용이 ㉠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20. 다음 <보기>의 글 다음에 나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찜찜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 ① 자연 속에서 무소유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 ②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③ 종교적 의지를 통해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

④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정답 ④

제목도 '거꾸로 보기'이며 글의 내용도 항상 보던 산이 다른 자세와 방향으로 보니 다르게 보인다는 내용이다. 즉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말하고 있으므로 모든 대상은 다양한 관점으로 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적합하다.